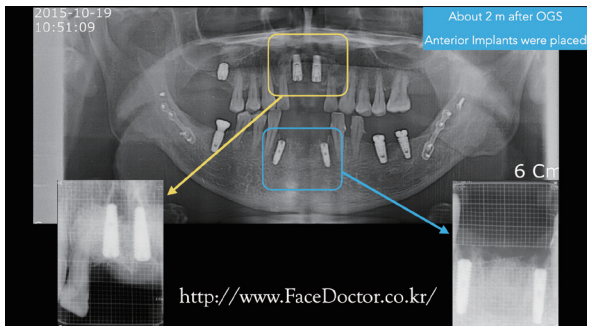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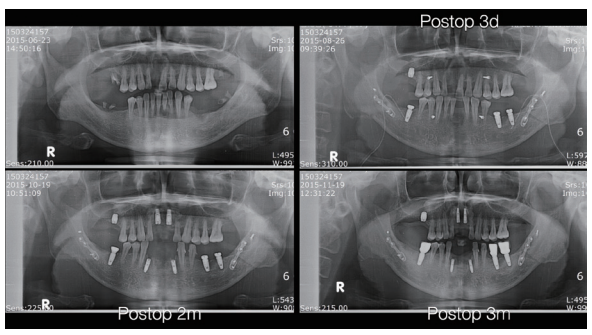
〈43면에 이어 계속〉



(그림22)



(그림23)

모든 보철이 완료된 상태이다(그림24). 절단된 하악골의 gap이 점점 없어져 골부위의 유합은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. 턱교정 수술후 1.5년째 파노라마 사진으로 교합상태가 안정적으로 보인다(그림25).



(그림24)



(그림2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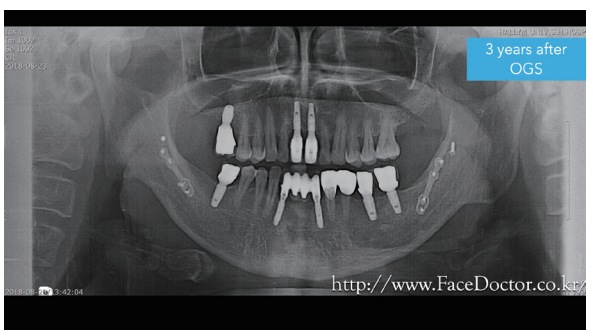
환자의 초진과 턱교정 수술 후 안모 및 8개월째의 구강내 사진이다(그림26, 27). 환자는 치료과정 중 #33과 #34의 crown이 시행되었으며 다른 치아들은 교합 조정과 임플란트 보철로 완료되었다. 초진 시 치아교정이 예상되었으나 임플란트와 두개 치아보철, 간단한 교합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합을 회복할 수 있었다. 최종 f/u 3년 5년째까지 특별한 교합문제나 치주적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다(그림28, 29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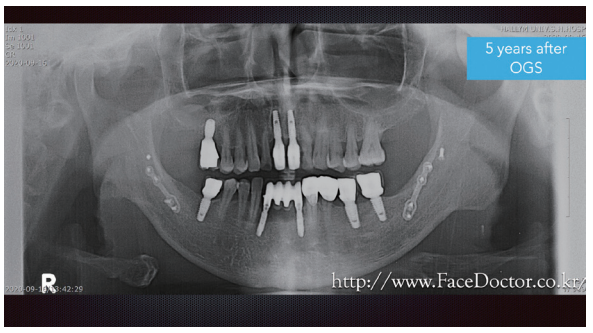
(그림26)



(그림27)



(그림28)



(그림29)

우리는 이 증례를 통해 턱교정수술과 임플란트 및 보철을 통한 치아 및 악구강계 건강회복을 이루었고,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술과 환자맞춤형 가이드 등이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.

요즘 임플란트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는 static guide가 턱교정수술에서도 동일하게 쉽게 적용될 수 있다.

이 증례들 이후 환자맞춤형 골고정체가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되어 더 정확한 수술이 이뤄지게 되었다. 향후 이와 관련된 치료법이 고령의 악안면골격이상 성인 환자에서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이 증례는 2016년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지에 보고된 증례(http://www.kaidimplant.or.kr/k1/journal/pdf/kaid35-2-07.pdf)로 5년 장기 f/u이 이뤄진 상태입니다.



양병은 교수

· 한림대 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
· 한림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겸 임플란트학과장
· 한림의대 치과학교실 주임교수